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보건학석사 학위논문

# 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전공

홍 성 희

# 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도교수 조 영 태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1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인구학 전공
홍 성 희

홍성희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12월

위 원 장 원 성 호 (인)

부위원장 조 성 일 (인)

위 원 조 영 태 (인)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지속된 경제적 양극화와 자산시장의 가격상승이 개인 간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속에서 가구소득이나 자산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도 과거와 비교하여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과 2018년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만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월평균 가구소득과 자산의 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과거 대비 현재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6년에는 가구소득의 상승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가구소득과 자산의 상승이 모두 출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2006년에서 2018년으로 갈수록 가구소득의 상승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약화되고 있으며, 자산의 상승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는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상황을 고려한 출산지원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출산에 있어 자산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점에 착안하여, 출산시기의 가구에 대한 주택 소유 접근성을 높여주고, 세금 등 주거비용을 낮추는 방향의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최근 지속된 경제적 양극화와 자산시장의 가격상승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고

려하여 출산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어 : 차별출산력, 경제적 불평등, 저출산, 가구소득, 자산
학 번 : 2016-25193

# 목 차

1. 서론 ····· 1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1.2 연구목적 ····· 8

2. 문헌고찰 및 연구가설 ····· 9
2.1 문헌고찰 ····· 9
2.1.1 소득과 출산 ····· 9
2.1.2 자산과 출산 ····· 10
2.2 연구가설 ····· 12

3. 연구방법 ····· 13
3.1 연구설계 ····· 13
3.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 14
3.3 변수의 정의 ····· 15
3.3.1 경제적 요인 변수 ····· 15
3.3.2 출산행위 변수 ····· 15
3.3.3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 15
3.4 분석방법 ····· 19

4. 연구결과 ····· 20
4.1 기초분석 ····· 20
4.2 대상자 특성별 출산행위 비교 ····· 25
4.2.1 가구소득 및 자산에 따른 출산행위 비교 ····· 25
4.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행위 비교 ····· 27
4.3 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34
4.4 취업/비취업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9
4.5 자가/비자가 거주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7

5. 고찰 ····· 55
5.1 논의 ····· 55
5.2 한계점 ····· 59
5.3 의의 ····· 60

6. 결론 ····· 61

참고문헌 ····· 62

Abstract ····· 67

# 표 목 차

<표 1> 변수 설명 ····· 17

<표 2> 기초 분석 ····· 22

<표 3> 가구소득 및 자산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 ····· 26

<표 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 ····· 30

<표 5-1> 2006년 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37

<표 5-2> 2018년 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38

<표 6-1> 취업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3

<표 6-2> 비취업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5

<표 7-1> 자가 거주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1

<표 7-2> 비자가(임대, 기타) 거주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3

# 그 림 목 차

[그림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2005년～2020년) ····· 4

[그림 2] 최근 7년간 취업자수 증감 현황(2014년～2020년)
····· 5

[그림 3] 최근 7년간 구직단념자 및 실업률 현황 (2014년～2020년)
····· 6

[그림 4] 가구주의 연령대별 아파트 소유 가구수 현황(2018년)
····· 7

[그림 5] 연구 모형 ····· 13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한국 사회는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시장 및 국내외 주식시장, 가상화폐 등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라 자산의 보유여부에 따른 불평등이 대두되고 있다. 자산 가격 상승은 부의 축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전체 소득불평등 중에서 자산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다(이우진, 2018; 전병우, 2019). 자산소득의 불평등은 근로소득의 축적보다 자산의 증식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초래되며(Coburn, 2016), 자산을 소유한 소수에게 집중되는 자산의 불평등이 커지면 소득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공주 & 신광영, 2018).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경제적 불평등과 함께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 현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다([그림 1]). 합계출산률이란 가임여성인 15세부터 49세까지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의 수로 지속 감소하여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4명으로, 당시 0명대를 기록한 OECD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1] 또한, 2020년 우리나라의 출생아수는 272,337명으로 2019년 대비 10.0% 이상의 감소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20만명 대에 진입하게 되었다([그림 1]). 이에 따라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1) KOSIS(OECD, 일반 인구통계), 2021. 10. 20.

관심과 학문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과거 1960년 초부터 실시한 가족계획 사업의 인구증가 억제정책과 경제, 사회문화의 발달과정을 겪으며 나타난 농업사회에서의 탈피, 핵가족문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에서 유래된 것으로 설명되어왔다. 이와 함께, 20대~30대의 비혼주의를 엿볼 수 있는 1인 가구수의 증가와 만혼화로 인한 출산 연령의 상승 등을 꼽을 수 있다. 2020년 일반가구 대비 1인 가구의 비중은 31.75%(6,643,354가구)였고, 이 중에서 20대는 19.07%(1,266,911가구), 30대는 16.79%(1,115,518가구)를 차지하였다.[2] 특히 20·30대의 1인 가구수는 2019년과 비교하여 각각 13.36%, 7.72%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첫째아 출산 연령도 점차 늦어지고 있다. 2000년도에 27.69세였던 첫째아 출산 연령은 2010년 30.10세, 2020년 32.30세로 지속 증가하였다.[3]

그간 연구에서는 초저출산의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경제적 요인은 출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출산과 양육이 기회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지연하거나 비혼을 선택하는 인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즉 출산이 여성과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본격적 출산 연령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의 인구층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인 경제적 지위가 출산율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노동시장의 불확실성과 자산시장의 변동성 증가 등으로 인하여 개인 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7년 동안 취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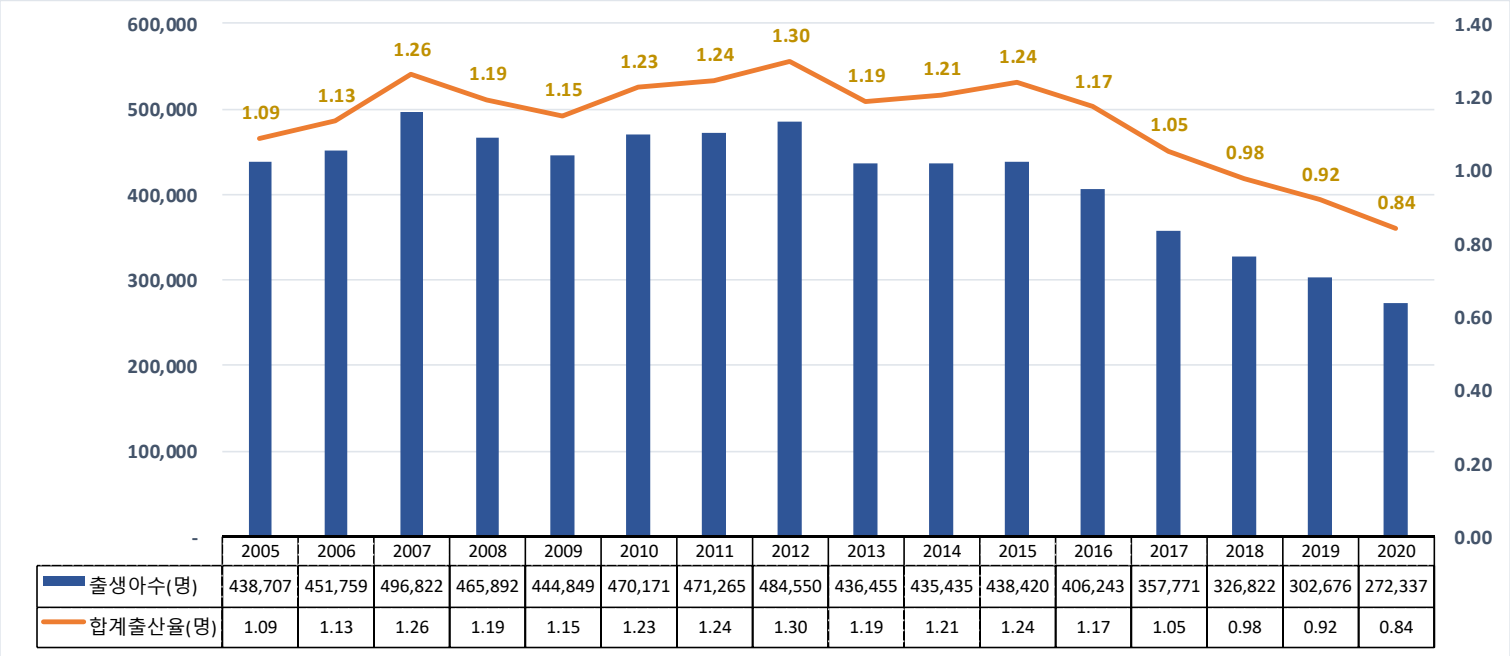
2) KOSIS(통계청e, 인구총조사,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2021. 10. 19.

3) KOSIS(통계청c, 인구동향조사, 시도/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2021. 9. 15.

자수 증감 현황과 구직단념자 및 실업률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취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그림 2], [그림 3]). 또한, '국민대차대조표' 자료를 보면, 2018년 가계의 자산 중 주택자산의 증가 폭이 확대되었고, 순자산 중 주택의 비중이 50.5%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는 개인의 자산 형성 측면에서 주택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가구주의 연령대별 아파트 소유 가구수 현황을 보면, 출산 연령대인 40대 미만의 아파트 소유 비율이 약 15% 정도로 나타났다([그림 4]). 즉,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되는 주거형 부동산 형태인 아파트의 소유에서 있어서는 20·30대가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지속된 경제적 양극화와 자산시장의 가격상승이 개인 간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과 자산과 같은 가구의 경제적 상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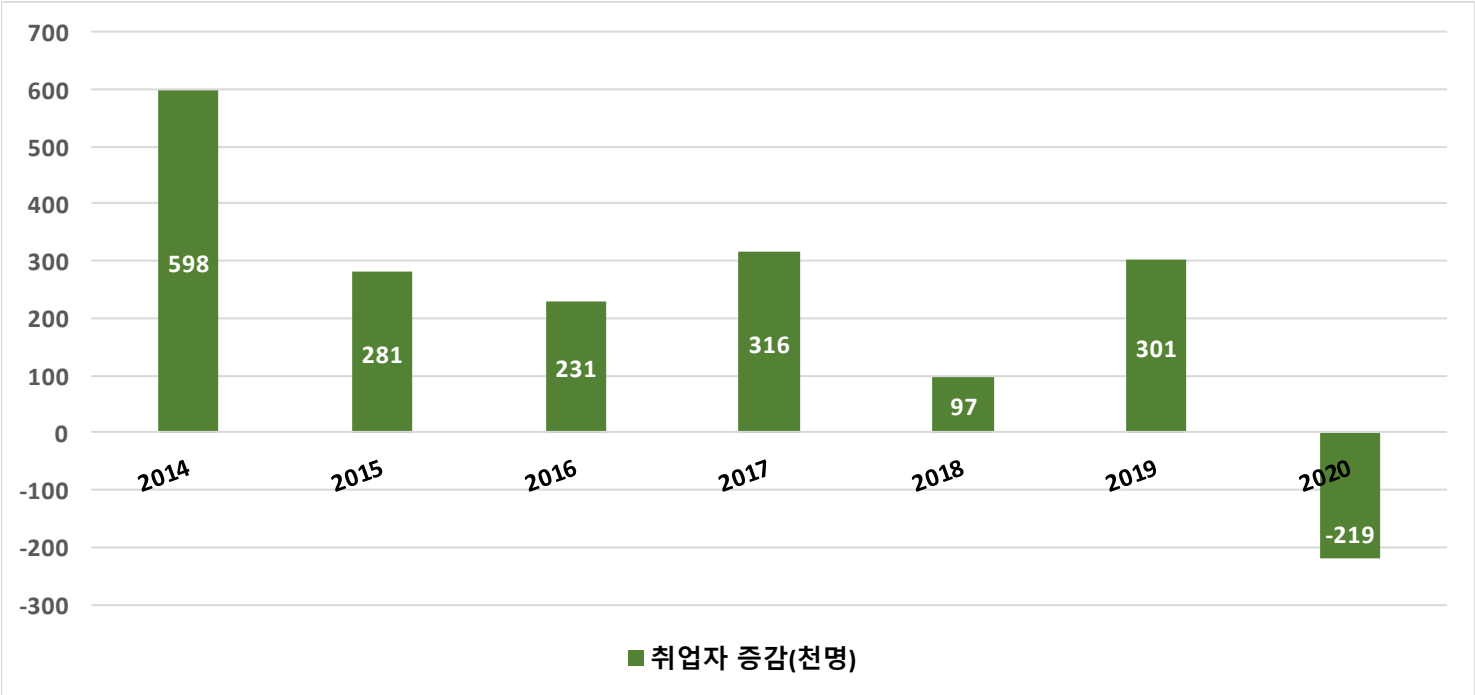
4) 국민대차대조표: 매년 말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경제 전체 및 개별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부채의 규모 및 변동 상황을 기록한 표(통계청, 2019)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출생아수(명) | 438,707 | 451,759 | 496,822 | 465,892 | 444,849 | 470,171 | 471,265 | 484,550 | 436,455 | 435,435 | 438,420 | 406,243 | 357,771 | 326,822 | 302,676 | 272,337 |
| 합계출산율(명) | 1.09 | 1.13 | 1.26 | 1.19 | 1.15 | 1.23 | 1.24 | 1.30 | 1.19 | 1.21 | 1.24 | 1.17 | 1.05 | 0.98 | 0.92 | 0.84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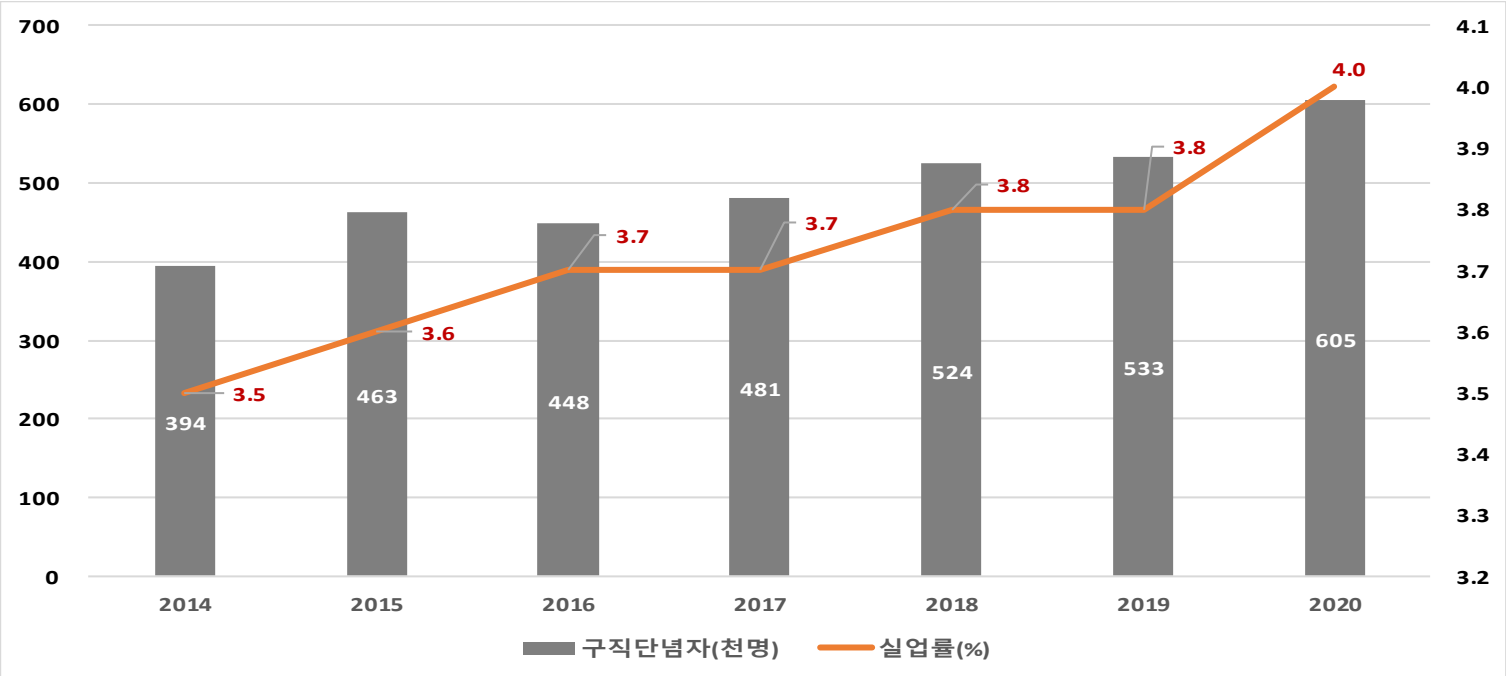
**[그림 1]**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 (2005년~2020년)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최근 7년간 취업자수 증감[5] 현황 (2014년~2020년)

5) 취업자수 증감: 전년 대비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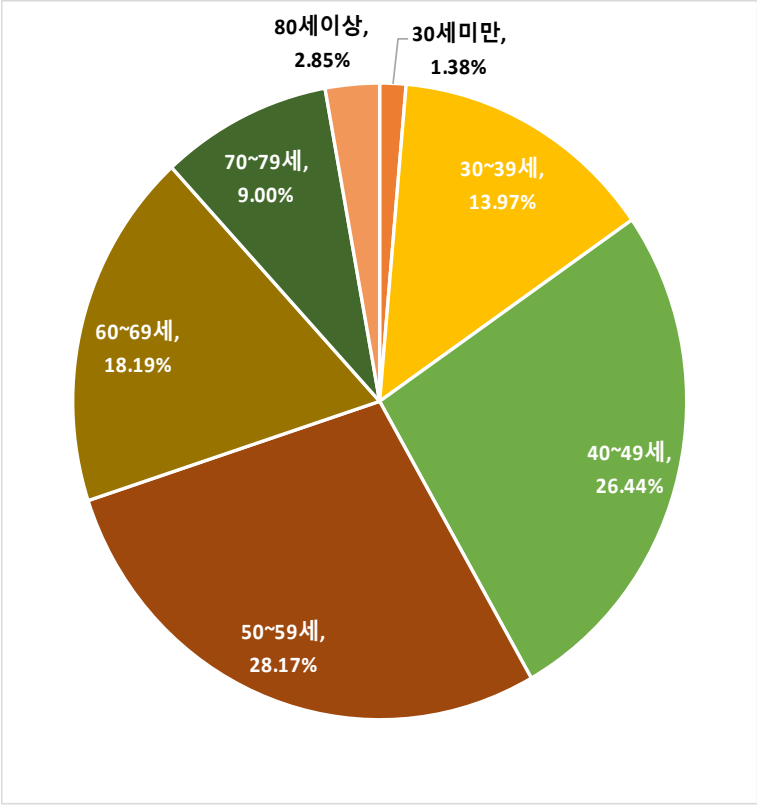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최근 7년간 구직단념자[6] 및 실업률[7] 현황 (2014년~2020년)

6)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희망과 취업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지난 4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자(통계청, 2021)

7) 실업률: 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통계청, 2021)




출처: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그림 4]** 가구주의 연령대별 아파트 소유 가구수 현황(2018년)

## 1.2 연구목적

본 연구를 통해 소득과 자산의 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과거 대비 현재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2006년과 2018년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소득과 자산을 독립변수로 하여 변화된 개인의 경제적 상태가 출산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추후 어떠한 경제적 요인이 출산율에 보다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인지 예측하고 이에 따른 시대와 상황에 맞는 정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소득과 자산의 변수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단일 시점에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요소들의 영향력의 변화를 2개의 시점에서 파악하는 점에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과 2018년의 우리나라 15~49세 기혼여성의 가구소득과 자산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행위를 비교한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2006년과 2018년의 우리나라 15~49세 기혼여성의 가구소득 및 자산에 따른 출산행위를 비교한다.

셋째, 2006년과 2018년의 우리나라 15~49세 기혼여성 중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넷째, 2006년과 2018년의 우리나라 15~49세 기혼여성 중 자가 거주 여성과 비자가 거주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 2. 문헌고찰 및 연구가설

## 2.1 문헌고찰

소득과 자산 등과 같은 경제적 요소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많은 이론 및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그 영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한다.

### 2.1.1 소득과 출산

출산행위는 소득 및 자산 등의 가구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Becker는 자녀에 대한 수요는 양(Quantity)과 질(Quality)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소득이 증가하면 자녀 양(Quantity)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 있지만, 자녀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자녀 질(Quality)에 대한 수요로 인하여 자녀 양(Quantity)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Becker, 1960).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계층에 따른 출산행태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저소득층에서는 경제적인 이유로 추가 출산을 기피한다는 응답이 많았다(김은정, 2013). 또한, 소득하위 30%의 금융자산은 생애 총 출산 자녀수와 음의 관계가 나타났으나, 이와 반대로 상위 30%에서는 금융자산이 추가 출산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은정, 이성림, 이완정 & 김한나, 2011). 또한, 배우자의 경제적 상황을 통제하고 취업 여성의 경제적 상황과 출산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취업 여성의 소득수준 상승은 출

산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민수 & 이근재, 2019).

그러나 경제적 수준은 자녀의 출산 순위별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현식(2017)의 연구에서는 가구소득이 증가하면 셋째 자녀의 출산 위험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추가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이라면 노동시장 밖에서 머물면서 가구소득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경제적 상태가 중간수준인 집단에서 높은 출산가능성이 나타난 연구도 있다.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출산력의 변화에 대해 분석한 김두섭(2007)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간집단에 해당하는 경우에서 출산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유사하게 차승은(2008)의 연구에서도 소득수준 하위 20%에 비해 중간집단에 해당하는 소득수준 20~80%에서 둘째 자녀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요인과 출산간에 별다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김사현, 2009; 정은희 & 최유석, 2013).

### 2.1.2 자산과 출산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택의 점유형태가 자가인 경우에 월세나 전세와 같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보다 출산의 가능성이 높았고(이삼식, 2013; 김현식, 2017; 신형섭 & 정의철, 2021), 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율의 하락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진백 & 이재희, 2016; 김민영 & 황진영, 2016; 천현숙, 이길제 & 김준형, 2016).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출산율 하락의 영향력은 호경기에 심화되고, 불경기에는 줄어들 수 있으며(박진백 & 이재희, 2016), 최근 심화된 한국 사회의 주택가격변동은 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의 출산율을 다르게 나타나게 할 수 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소유자는 자산효과로 인해 출산의 가능성

이 증가할 수 있지만, 주택 비소유자의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출산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박진백 & 이재희, 2016).

미국의 사례를 보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소유자의 출산율은 증가하고 주택 비소유자의 출산율은 감소하였고(Dettling & Kearney, 2014), 우리나라에서도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시작한 신혼부부의 경우에 주택가액이 높으면 자녀를 빨리 출산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배호중 & 한창근, 2016).

위와 같이 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하였다. 그간 저출산을 초래하는 원인 중 하나로 가구의 경제적 요인을 지목하며 그 영향력에 대해 서술하고 정책을 제언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나, 과거와 현재의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요소들의 영향력의 변화를 비교하는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요소의 영향력의 변화에 따른 출산의 변화를 알아내어, 우리 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2.2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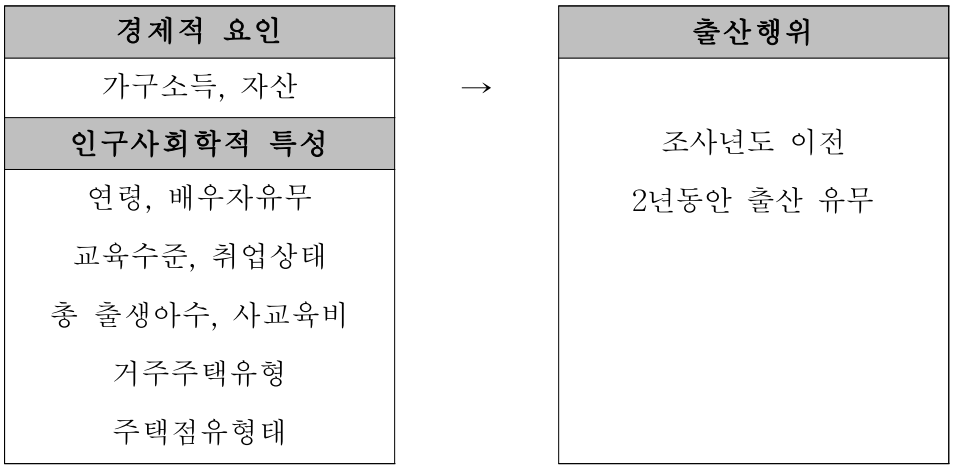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2006년 우리나라 15~49세 기혼여성의 출산행위는 자산의 증가보다 가구소득 증가의 영향력이 클 것이다.
2. 2018년 우리나라 15~49세 기혼여성의 출산행위는 가구소득의 증가보다 자산 증가의 영향력이 클 것이다.
3. 우리나라 15~49세 기혼여성의 출산행위에 가구소득 및 자산의 증가가 미치는 영향력은 2006년에서 2018년으로 갈수록 커질 것이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설계

문헌 고찰을 통하여 가구의 경제적 상태가 출산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변수 및 분석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후 2006년과 2018년에 수행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응답자의 가구소득과 자산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설명변수와 통제변수로 활용하여 출산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출산행위에 대해서는 각 조사년도 이전 2년동안 출산 유무로 측정하여 횡단면 자료의 특성상 나타나는 시점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모형은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연구 모형

## 3.2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2006년과 2018년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만15~49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는 출산력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 결혼, 출산 등에 대한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1964년 최초로 실시되었다(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 이건우, 2006; 이소영 외, 2018). 이 조사는 1979년 이후로는 3년마다 시행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가족과 출산 조사'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2006년과 2018년 조사 자료는 각각 20번째, 24번째로 실시된 결과이다. 2006년 조사는 표본조사지역 내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구조사와 15~59세 기혼가구조사 및 15~49세 기혼여성조사로 이루어졌다. 2018년 조사의 대상은 표본조사구 내의 가구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만15~49세) 및 미혼남녀(만20세~44세)이다. 조사의 방법은 사전에 훈련된 전문조사원이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 방식이다. 각 연도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수집은 2006년 6월~8월, 2018년 7월~9월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2006년 4,748명, 2018년 9,933명이다. 각 조사년도에 응답한 만 15세~49세 기혼여성 자료 중에서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결측치 및 소득과 자산 변수의 이상치를 제외한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IRB 면제승인(승인번호: IRB No. E2109/002-002)을 받고 진행되었다.

## 3.3 변수의 정의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표 1>과 같다.

### 3.3.1 경제적 요인 변수

본 연구의 경제적 요인 변수는 가구소득과 자산이다. 월평균 가구소득과 자산 변수의 3분위수를 구한 후 이를 토대로 3개의 구간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이때, 자산은 동산과 부동산을 합한 금액이다.

### 3.3.2 출산행위 변수

본 연구의 출산행위는 '조사년도 이전 2년 동안의 출산 유무'로 측정하였다. 2006년도는 2004년 1월 이후 출생아수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있음'으로, 출생아가 없는 경우는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2018년도는 2016년 이후 출생아가 있는 경우에는 '있음'으로, 없는 경우에는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 3.3.3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는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취업상태, 총 출생아수, 사교육비, 거주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이다. 연령은 '27세 이하', '28세~33세', '34세~37세', '38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배우자 유무는 '있음'과 '없음'으로 분류하였는데, '없음'에는 사별, 이혼, 별거, 미혼을 포함하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와 '대학이상'으로 분류하였다. '고졸이하'는 무학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휴학, 재학, 중퇴, 졸업을 포함하였고, '대학이상'은 전문대학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의 휴학,

재학, 중퇴, 이수 및 졸업을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취업상태는 ‘취업’과 ‘비취업’으로 분류하였으며, 취업 중인 경우를 제외한 비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비해당인 경우를 모두 ‘비취업’으로 분류하였다.

총 출생아수는 ‘없음’, ‘1명’, ‘2명’, ‘3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사교육비는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비해당은 ‘50만원 미만’으로 포함하였다. 총 출생아수와 사교육비는 분석 방법에 따라 범주형 변수 혹은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거주주택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 주택’으로 구분하였고, 주택점유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기타로 분류하였다. ‘월세’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와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포함하였고, 사글세나 관사 및 사택 등은 ‘기타’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표 1> 변수 설명

| 구분 | 변수 | 설명 |
|---|---|---|
| 경제적 요인 | 가구소득 | 1분위 |
| | | 2분위 |
| | | 3분위 |
| | 자산 (동산+부동산) | 1분위 |
| | | 2분위 |
| | | 3분위 |
| 출산 행위 | 조사년도 이전 2년동안 출산 유무 | 있음(2004년 이후 출생아 있음, 2016년 이후 출생아 있음) |
| | | 없음(2004년 이후 출생아 없음, 2016년 이후 출생아 없음) |
| 인구 사회학적 특성 | 연령 | 27세 이하 |
| | | 28세~33세 |
| | | 34세~37세 |
| | | 38세 이상 |
| | 배우자 유무 | 있음 |
| | | 없음(사별, 이혼, 별거, 미혼) |
| | 교육 수준 | 고졸이하(무학~초중고 휴학, 재학, 중퇴, 졸업) |
| | | 대학이상(전문대학~대학이상 휴학, 재학, 중퇴, 이수, 졸업) |
| | 취업 상태 | 취업 |
| | | 비취업(비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비해당) |

<표 1> (계속)

| 구분 | 변수 | 설명 |
|---|---|---|
| 인구 사회학적 특성 | 총 출생아수 | 없음 |
| | | 1명 |
| | | 2명 |
| | | 3명 이상 |
| | 사교육비 | 50만원 미만(비해당 포함) |
| |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
| | | 100만원 이상 |
| | 거주주택 유형 | 단독주택 |
| | | 아파트 |
| | | 연립, 다세대 |
| | 주택점유 형태 | 자가 |
| | | 전세 |
| | | 월세(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
| | | 기타(기타, 사글세, 관사나 사택 등의 무상) |

## 3.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을 위한 전처리 작업은 R Studio와 Excel을 활용하였고, 전처리 완료된 데이터는 SAS 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의 구체적인 분석 과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출산행위, 가구소득 및 자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제시한 기초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가구소득 및 자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오즈비(Odds ratio, OR) 및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산출한다.

넷째,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오즈비(Odds ratio, OR) 및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산출한다.

다섯째, 자가 거주 여성과 비자가(임대, 기타) 거주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오즈비(Odds ratio, OR) 및 95% 신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산출한다.

# 4. 연구결과

## 4.1 기초분석

<표2> 는 연구대상자의 출산행위, 가구소득 및 자산,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기초 분석 결과를 제시한 표이다.

2006년에는 연구대상자의 16.24%, 2018년은 15.82%에서 각 조사년도 이전 2년 동안 출산이 확인되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6년 평균 358.6만원, 2018년 평균 532.3만원 이었다. 분위별 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1분위는 2006년 182.9만원, 2018년 329.1만원이었고, 2분위는 2006년 307.3만원, 2018년 495.6만원이었다. 마지막으로 3분위의 결과는 2006년 551.2만원, 2018년 768.9만원으로 확인되었다. 2006년에서 2018년으로 갈수록 분위별 평균 가구소득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보유 자산은 2006년 2.0억원, 2018년 3.3억원 이었다. 분위별 평균 자산을 보면, 1분위는 2006년 0.46억원, 2018년 1.2억원이었고, 2분위는 2006년 1.3억원, 2018년 2.6억원이었다. 3분위 결과는 2006년 4.2억원, 2018년 6.1억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과 마찬가지로, 2006년에서 2018년으로 갈수록 분위별 평균 자산은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006년 38.1세, 2018년 40.4세이다. 2006년에서 2018년으로 갈수록 37세 이하의 대상자는 감소하였고(2006년 47.28%, 2018년 32.59%), 38세 이상의 대상자는 증가하였다(2006년 52.72%, 2018년 67.42%).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는 2006년 96.93%, 2018년 97.00%로 2개년도에서 유사하였다. 교육 수준을 보면, 대학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대상자는 2006년에 37.59%에서 2018년 66.47%로 증가하였고, 반대로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대상자는 2006년 62.41%에서 2018년 33.53%로 감소하였다. 취업 중인 대상자는 2006년 50.07%, 2018년 58.9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은 2006년 평균 1.9명, 2018년 평균 1.8명의 자녀를 출산하였고, 자녀가 없거나 1명의 자녀를 둔 대상자는 2006년 21.29%에서 2018년 32.57%로 증가하였다. 사교육비 평균 지출액은 2006년 40.2만원, 2018년 37.6만원으로, 사교육비를 100만원 이상 지출한 대상자는 2006년 8.58%, 2018년 11.99% 이었다.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2006년은 아파트(64.81%), 단독주택(20.87%), 연립 주택 및 다세대 주택(14.3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018년은 아파트(81.28%), 연립 주택 및 다세대 주택(11.04%), 단독주택(7.68%) 순이었다.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 형태는 2006년과 2018년 모두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06년에 비하여 2018년의 자가 점유 비율(2006년 63.99%, 2018년 70.76%)은 증가하였고, 전세 비율(2006년 23.91%, 2018년 17.73%) 및 월세 비율(2006년 9.05%, 2018년 8.96%)은 감소하였다.

<표 2> 기초 분석

단위(N, %)

| 변수 | 분류 | 2006년 (N=4748) | | 2018년 (N=9933) | |
|---|---|---|---|---|---|
| 조사년도 이전 2년동안 출산 유무 | 있음 | 771 | (16.24) | 1572 | (15.82) |
| | 없음 | 3977 | (83.76) | 8361 | (84.18) |
| 가구소득 | Mean±SD(만원) | 358.6 | ±181.9 | 532.3 | ±209.5 |
| | 1분위 [Mean±SD(만원)] | 182.9 | ±37.9 | 329.1 | ±58.2 |
| | 2분위 [(Mean±SD(만원)] | 307.3 | ±41.0 | 495.6 | ±45.7 |
| | 3분위 [Mean±SD(만원)] | 551.2 | ±164.6 | 768.9 | ±168.4 |
| 자산 | Mean±SD(만원) | 20051.6 | ±21703.4 | 33204.5 | ±26338.2 |
| | 1분위 [Mean±SD(만원)] | 4622.3 | ±2161.6 | 11821.3 | ±4245.2 |
| | 2분위 [(Mean±SD(만원)] | 12857.4 | ±3222.4 | 26000.0 | ±4553.3 |
| | 3분위 [Mean±SD(만원)] | 42282.6 | ±24664.7 | 61013.5 | ±27646.3 |

<표 2> (계속)

단위(N, %)

| 변수 | 분류 | 2006년 (N=4748) | | 2018년 (N=9933) | |
|---|---|---|---|---|---|
| 연령 | Mean±SD(세) | 38.1 | ±5.9 | 40.4 | ±6.0 |
| | 27세 이하 | 150 | (3.15) | 194 | (1.96) |
| | 28~33 | 1001 | (21.08) | 1281 | (12.90) |
| | 34~37 | 1094 | (23.05) | 1761 | (17.73) |
| | 38세 이상 | 2503 | (52.72) | 6697 | (67.42) |
| 배우자유무 | 있음 | 4603 | (96.93) | 9634 | (97.00) |
| | 없음 | 146 | (3.07) | 298 | (3.00)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2963 | (62.41) | 3331 | (33.53) |
| | 대학이상 | 1785 | (37.59) | 6602 | (66.47) |
| 취업상태 | 취업 | 2378 | (50.07) | 5854 | (58.93) |
| | 비취업 | 2371 | (49.93) | 4079 | (41.07) |

<표 2> (계속)

단위(N, %)

| 변수 | 분류 | 2006년 (N=4748) | | 2018년 (N=9933) | |
|---|---|---|---|---|---|
| 총 출생아수 | Mean±SD(명) | 1.9 | ±0.6 | 1.8 | ±0.8 |
| | 없음 | 5 | (0.10) | 662 | (6.66) |
| | 1명 | 1006 | (21.19) | 2573 | (25.91) |
| | 2명 | 3114 | (65.59) | 5395 | (54.31) |
| | 3명 이상 | 623 | (13.12) | 1303 | (13.12) |
| 사교육비 | Mean±SD(만원) | 40.2 | ±43.9 | 37.6 | ±49.0 |
| | 50만원 미만 | 3159 | (66.54) | 6761 | (68.06) |
| | 50-100 | 1182 | (24.89) | 1981 | (19.94) |
| | 100만원 이상 | 407 | (8.58) | 1191 | (11.99) |
| 거주주택유형 | 단독주택 | 991 | (20.87) | 763 | (7.68) |
| | 아파트 | 3077 | (64.81) | 8073 | (81.28) |
| | 연립, 다세대 | 680 | (14.31) | 1097 | (11.04) |
| 주택점유형태 | 자가 | 3038 | (63.99) | 7028 | (70.76) |
| | 전세 | 1135 | (23.91) | 1761 | (17.73) |
| | 월세 | 430 | (9.05) | 890 | (8.96) |
| | 기타 | 145 | (3.06) | 253 | (2.54) |

## 4.2 대상자 특성별 출산행위 비교

### 4.2.1 가구소득 및 자산에 따른 출산행위 비교

<표3>은 가구소득 및 자산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를 나타낸 표이다.

가구소득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는 2개년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었다(p<.0001). 2006년은 가구소득이 1분위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23.28%, 2분위 대상자의 16.62%, 3분위 대상자의 10.29%에서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는 가구소득이 1분위에 속하는 대상자의 21.98%, 2분위 대상자의 13.41%, 3분위 대상자의 12.15%가 자녀를 출산하였다. 2개년도를 비교하였을 때, 2006년에 비하여 2018년에는 가구소득이 1분위와 2분위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자녀 출산은 각각 1.30%, 3.21% 감소하였으나, 3분위에 속하는 대상자의 경우 2006년과 비교하여 2018년의 자녀 출산이 1.86% 상승하였다.

다음으로 자산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를 살펴보면, 2006년은 자산이 1분위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21.38%, 2분위 대상자의 16.98%, 3분위 대상자의 10.47%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다. 2018년의 결과를 보면, 자산이 1분위에 속하는 대상자의 17.38%, 2분위 대상자의 17.22%, 3분위 대상자의 12.96%에서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각 범주별 출산행위는 2개년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01). 2006년과 2018년을 비교해봤을 때, 자산이 1분위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자녀 출산은 2006년에 비해 2018년 4.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이 2분위와 3분위에 속하는 대상자의 경우 2006년과 비교하여 2018년 각각 0.24%, 2.49% 출산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가구소득 및 자산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

| 변수 | 분류 | 2006년 | | | | 2018년 | | | |
|---|---|---|---|---|---|---|---|---|---|
| | | 2004년 이후 출산유무 | | 합계 (N=4748) | *p* | 2016년 이후 출산유무 | | 합계 (N=9933) | *p* |
| | | 있음 (N=771) | 없음 (N=3977) | | | 있음 (N=1572) | 없음 (N=8361) | | |
| 가구 소득 | 1분위 | 307 (23.28) | 1011 (76.72) | 1318 | <.0001 | 722 (21.98) | 2563 (78.02) | 3286 | <.0001 |
| | 2분위 | 293 (16.62) | 1467 (83.38) | 1760 | | 444 (13.41) | 2869 (86.59) | 3313 | |
| | 3분위 | 172 (10.29) | 1499 (89.71) | 1671 | | 405 (12.15) | 2929 (87.85) | 3334 | |
| 자산 | 1분위 | 338 (21.38) | 1244 (78.62) | 1582 | <.0001 | 575 (17.38) | 2733 (82.62) | 3308 | <.0001 |
| | 2분위 | 265 (16.98) | 1297 (83.02) | 1563 | | 558 (17.22) | 2683 (82.78) | 3241 | |
| | 3분위 | 168 (10.47) | 1436 (89.53) | 1604 | | 439 (12.96) | 2945 (87.04) | 3383 | |

### 4.2.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행위 비교

<표4>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를 나타낸 표이다.

연령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를 범주별로 살펴봤을 때, 2개년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0001). 2006년은 27세 이하 대상자의 81.30%, 28세~33세 대상자의 46.17%, 34~37세 대상자의 14.40%, 38세 이상 대상자의 1.20%가 자녀를 출산하였고, 2018년에는 27세 이하 대상자의 55.51%, 28세~33세 대상자의 51.17%, 34~37세 대상자의 30.02%, 38세 이상 대상자의 4.18%가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과 2018년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 출산은 감소하였다. 2006년 대비 2018년을 보면, 27세 이하 대상자의 자녀 출산이 25.79% 대폭 감소하였고, 34세~37세 대상자의 자녀 출산은 15.62% 크게 증가하였다. 다른 연령대의 경우 2006년에 비하여 2018년에는 약간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배우자 유무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는 2개년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었다(p<.0001). 2006년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16.69%,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2.05%에서 자녀를 출산하였고, 2018년에는 배우자가 있는 대상자의 16.28%, 배우자가 없는 대상자의 1.18%가 자녀를 출산하였다.

교육 수준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는 고졸 이하와 대학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2006년에는 고졸 이하 대상자의 11.04%, 대학 이상 대상자의 24.88%에서 자녀를 출산하였고, 2018년은 고졸 이하의 8.42%, 대학 이상의 19.56%에서 자녀 출산이 이루어졌다. 고졸 이하와 대학 이상의 범주 모두에서 2006년에 비하여 2018년의 자녀 출산이 감소하였는데, 고졸 이하 대상자는 2.62% 감소하였고 대학 이상의 경우에는 5.32% 감소하여 대학 이상에서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취업 상태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는 2개년도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1). 2006년에는 취업 중인 대상자의 8.92%, 비취업 상태인 대상자의 23.59%에서 자녀 출산이 이루어졌고, 2018년은 취업 중인 경우의 10.57%, 비취업 상태인 경우의 23.37%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다. 2006년과 비교하여 2018년에는 취업 중인 대상자의 자녀 출산이 약간 증가하였고(1.65%), 비취업 상태의 경우에는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총 출생아수에 따른 출산행위는 2개년도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0001). 2006년은 출생아수가 1명인 대상자의 34.71%, 2명인 대상자의 10.91%, 3명 이상인 대상자의 13.21%에서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8년에는 출생아수가 1명인 경우의 27.32%, 2명인 경우의 12.69%, 3명 이상인 경우의 14.16%에서 자녀를 출산하였다. 2006년과 2018년에서 모두 1명, 3명 이상, 2명 순으로 자녀의 출산이 높게 나타났다. 2006년과 비교하여 2018년을 봤을 때, 출생아수가 1명인 대상자의 자녀 출산은 7.39% 감소하였으나, 2명과 3명 이상인 경우에서는 소폭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사교육비 지출액을 3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출산행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p<.0001). 2006년은 사교육비 지출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의 21.86%,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인 경우의 5.93%, 100만원 이상인 경우의 2.59%에서 자녀 출산이 이루어졌고, 2018년에는 사교육비 지출액이 50만원 미만인 대상자의 22.17%,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인 대상자의 2.75%, 100만원 이상인 대상자의 1.55%에서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에 대비하여 보면, 2018년의 자녀 출산은 사교육비 지출액이 50만원 미만인 구간에서는 매우 작은 증가가 관찰되었으나(0.31%),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및 100만원 이상인 구간에서는 약간의 감소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 및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 형태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는 2006년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p=0.3791), 2018년에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0.0023). 2018년 분석 결과를 보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12.09%,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15.87%, 연립 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18.06%에서 자녀 출산이 이루어졌다.

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 형태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는 2006년과 2018년에서 모두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었다(p<.0001). 2006년은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12.56%,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23.27%,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21.47%, 사글세 및 관사나 사택 등과 같은 기타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22.84%에서 자녀 출산이 이루어졌다. 2018년에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의 13.37%, 전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의 25.13%,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의 14.98%, 기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의 22.23%에서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거주하는 주택 유형별로 출산행위를 살펴봤을 때, 연립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순으로 자녀 출산이 높게 나타났다. 주택의 점유 형태에 따라 보면, 2개년도 모두 전세, 기타, 월세, 자가 순으로 자녀 출산이 높았다. 이는 연립 및 다세대 주택보다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의 주거비 부담이 크고, 자가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경제적 양극화로 인하여 가임 가능한 연령대의 많은 기혼 여성들이 주거 안정성이 낮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4>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출산행위의 차이

| 변수 | 분류 | 2006년 | | | | 2018년 | | | |
|---|---|---|---|---|---|---|---|---|---|
| | | 2004년 이후 출산유무 | | 합계 (N=4748) | *p* | 2016년 이후 출산유무 | | 합계 (N=9933) | *p* |
| | | 있음 (N=771) | 없음 (N=3977) | | | 있음 (N=1572) | 없음 (N=8361) | | |
| 연령 | 27세 이하 | 122 (81.30) | 28 (18.70) | 150 | <.0001 | 108 (55.51) | 86 (44.49) | 194 | <.0001 |
| | 28~33 | 462 (46.17) | 539 (53.83) | 1001 | | 656 (51.17) | 626 (48.83) | 1281 | |
| | 34~37 | 158 (14.40) | 937 (85.60) | 1094 | | 528 (30.02) | 1232 (69.98) | 1761 | |
| | 38세 이상 | 30 (1.20) | 2473 (98.80) | 2503 | | 280 (4.18) | 6417 (95.82) | 6697 | |
| 배우자 유무 | 있음 | 768 (16.69) | 3834 (83.31) | 4603 | <.0001 | 1568 (16.28) | 8066 (83.72) | 9634 | <.0001 |
| | 없음 | 3 (2.05) | 143 (97.95) | 146 | | 4 (1.18) | 295 (98.82) | 298 | |

<표4> (계속)

| 변수 | 분류 | 2006년 | | | | 2018년 | | | |
|---|---|---|---|---|---|---|---|---|---|
| | | 2004년 이후 출산유무 | | 합계 (N=4748) | *p* | 2016년 이후 출산유무 | | 합계 (N=9933) | *p* |
| | | 있음 (N=771) | 없음 (N=3977) | | | 있음 (N=1572) | 없음 (N=8361) | | |
| 교육 수준 | 고졸 이하 | 327 (11.04) | 2636 (88.96) | 2963 | <.0001 | 280 (8.42) | 3050 (91.58) | 3331 | <.0001 |
| | 대학 이상 | 444 (24.88) | 1341 (75.12) | 1785 | | 1291 (19.56) | 5311 (80.44) | 6602 | |
| 취업 상태 | 취업 | 212 (8.92) | 2166 (91.08) | 2378 | <.0001 | 619 (10.57) | 5235 (89.43) | 5854 | <.0001 |
| | 비취업 | 559 (23.59) | 1811 (76.41) | 2371 | | 953 (23.37) | 3126 (76.63) | 4079 | |

<표4> (계속)

| 변수 | 분류 | 2006년 | | | | 2018년 | | | |
|---|---|---|---|---|---|---|---|---|---|
| | | 2004년 이후 출산유무 | | 합계 (N=4748) | *p* | 2016년 이후 출산유무 | | 합계 (N=9933) | *p* |
| | | 있음 (N=771) | 없음 (N=3977) | | | 있음 (N=1572) | 없음 (N=8361) | | |
| 총 출생아수 | 없음 | 0 (0) | 5 (100) | 5 | <.0001 | 0 (0) | 662 (100) | 662 | <.0001 |
| | 1명 | 349 (34.71) | 657 (65.29) | 1006 | | 703 (27.32) | 1870 (72.68) | 2573 | |
| | 2명 | 340 (10.91) | 2775 (89.09) | 3114 | | 684 (12.69) | 4710 (87.31) | 5395 | |
| | 3명 이상 | 82 (13.21) | 541 (86.79) | 623 | | 184 (14.16) | 1118 (85.84) | 1303 | |
| 사교육비 | 50만원 미만 | 691 (21.86) | 2469 (78.14) | 3159 | <.0001 | 1499 (22.17) | 5262 (77.83) | 6761 | <.0001 |
| | 50-100 | 70 (5.93) | 1112 (94.07) | 1182 | | 54 (2.75) | 1926 (97.25) | 1981 | |
| | 100만원 이상 | 11 (2.59) | 397 (97.41) | 407 | | 19 (1.55) | 1173 (98.45) | 1191 | |

<표4> (계속)

| 변수 | 분류 | 2006년 | | | | 2018년 | | | |
|---|---|---|---|---|---|---|---|---|---|
| | | 2004년 이후 출산유무 | | 합계 (N=4748) | *p* | 2016년 이후 출산유무 | | 합계 (N=9933) | *p* |
| | | 있음 (N=771) | 없음 (N=3977) | | | 있음 (N=1572) | 없음 (N=8361) | | |
| 거주주택 유형 | 단독 주택 | 147 (14.82) | 844 (85.18) | 991 | 0.3791 | 92 (12.09) | 671 (87.91) | 763 | 0.0023 |
| | 아파트 | 509 (16.55) | 2568 (83.45) | 3077 | | 1281 (15.87) | 6791 (84.13) | 8073 | |
| | 연립, 다세대 | 115 (16.94) | 565 (83.06) | 680 | | 198 (18.06) | 899 (81.94) | 1097 | |
| 주택점유 형태 | 자가 | 382 (12.56) | 2656 (87.44) | 3038 | <.0001 | 939 (13.37) | 6089 (86.63) | 7028 | <.0001 |
| | 전세 | 264 (23.27) | 871 (76.73) | 1135 | | 443 (25.13) | 1319 (74.87) | 1761 | |
| | 월세 | 92 (21.47) | 337 (78.53) | 430 | | 133 (14.98) | 757 (85.02) | 890 | |
| | 기타 | 33 (22.84) | 112 (77.16) | 145 | | 56 (22.23) | 196 (77.77) | 253 | |

## 4.3 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연도별 월평균 가구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네 가지 모형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5-1>과 <표5-2>에 제시하였다.

Model 1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연속형 변수로 투입하여 각 변수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Model 2에서는 가구의 소득은 연속형 변수로 투입하고, 자산은 세 가지로 범주화한 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때, 자산이 1분위에 속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 각 자산 분위별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Model 3에서는 자산을 연속형 변수로 사용하고, 가구의 소득을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투입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가구의 소득이 1분위에 해당되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각 범주별로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Model 4에서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을 모두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투입하였다. 범주화된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가구의 자산과 소득 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각 구간별로 세부 분석하였다.

2006년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Model 1과 Model 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Model 2에서는 오즈비 1.384(95% 신뢰구간 1.018-1.883)로 확인되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의 소득을 세 가지 구간별로 살펴본 Model 4에서는 가구소득이 1분위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비하여 3분위 대상자의 자녀 출산 가능성이 1.449배(1.031-2.036)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2006년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Model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018년 월평균 가구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Model 1에서 오즈비 1.284(1.015-1.626), Model 2에서 오즈비 1.327(1.053-1.672)로 나타나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구의 소득을 세 가지 구간별로 살펴본 Model 3과 Model 4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2018년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Model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Model 1과 Model 3의 오즈비는 각각 1.171(1.039-1.320), 1.191(1.060-1.339)로 확인되어 자산이 증가할수록 출산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을 세 가지 구간별로 살펴본 Model 2와 Model 4에서는 자산이 1분위에 속하는 대상자에 비하여 2분위 대상자의 자녀 출산 가능성이 Model 2는 1.216배(1.021-1.448), Model 4는 1.244배(1.044-1.481)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3분위 대상자의 자녀 출산 가능성은 Model 2에서는 1.275배(1.040-1.563), Model 4에서는 1.314배(1.075-1.605)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해보면, 2개년도에서 모두 가구의 소득이 많을수록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구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오즈비의 변화를 보면, 2006년에서 2018년으로 갈수록 가구의 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다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06년에는 가구소득이 1분위에 속하는 대상자에 비하여 3분위 대상자의 출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위별 가구소득에 대한 2018년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자산과 출산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2006년은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2018년에는 자산의 증가가 출산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자산이 1분위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비하여 2분위와 3분위

대상자의 자녀 출산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로써 2006년에서 2018년으로 갈수록 월평균 가구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다소 약화되고 있으며,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5-1> 2006년 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Variables | | Model 1 | | | Model 2 | | | Model 3 | | | Model 4 | | |
|---|---|---|---|---|---|---|---|---|---|---|---|---|---|
| | | Adjusted OR | 95% CI | | Adjusted OR | 95% CI | | Adjusted OR | 95% CI | | Adjusted OR | 95% CI | |
| Log 가구소득 | | 1.318 | 0.962 | 1.807 | 1.384 | 1.018 | 1.883* | - | - | - | - | - | - |
| 가구소득 | 1분위 | - | - | - | - | - | - | REF | | | REF | | |
| | 2분위 | - | - | - | - | - | - | 0.931 | 0.718 | 1.207 | 0.945 | 0.729 | 1.223 |
| | 3분위 | - | - | - | - | - | - | 1.375 | 0.975 | 1.940 | 1.449 | 1.031 | 2.036* |
| Log 자산 | | 1.070 | 0.920 | 1.243 | - | - | - | 1.075 | 0.928 | 1.245 | - | - | - |
| 자산 | 1분위 | - | - | - | REF | | | - | - | - | REF | | |
| | 2분위 | - | - | - | 1.119 | 0.854 | 1.467 | - | - | - | 1.141 | 0.869 | 1.499 |
| | 3분위 | - | - | - | 1.045 | 0.749 | 1.457 | - | - | - | 1.044 | 0.750 | 1.454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05*

출산: 2004년~2006년 출생아 '있음'=1, '없음'=0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취업상태, 총 출생아수, 사교육비, 거주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를 통제하였음.

가구소득과 자산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표5-2> 2018년 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

| Variables | | Model 1 | | | Model 2 | | | Model 3 | | | Model 4 | | |
|---|---|---|---|---|---|---|---|---|---|---|---|---|---|
| | | Adjusted OR | 95% CI | | Adjusted OR | 95% CI | | Adjusted OR | 95% CI | | Adjusted OR | 95% CI | |
| Log 가구소득 | | 1.284 | 1.015 | 1.626* | 1.327 | 1.053 | 1.672* | - | - | - | - | - | - |
| 가구소득 | 1분위 | - | - | - | - | - | - | REF | | | REF | | |
| | 2분위 | - | - | - | - | - | - | 0.894 | 0.750 | 1.067 | 0.899 | 0.755 | 1.072 |
| | 3분위 | - | - | - | - | - | - | 1.195 | 0.968 | 1.474 | 1.225 | 0.996 | 1.508 |
| Log 자산 | | 1.171 | 1.039 | 1.320* | - | - | - | 1.191 | 1.060 | 1.339* | - | - | - |
| 자산 | 1분위 | - | - | - | REF | | | - | - | - | REF | | |
| | 2분위 | - | - | - | 1.216 | 1.021 | 1.448* | - | - | - | 1.244 | 1.044 | 1.481* |
| | 3분위 | - | - | - | 1.275 | 1.040 | 1.563* | - | - | - | 1.314 | 1.075 | 1.605*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05*

출산: 2016년~2018년 출생아 '있음'=1, '없음'=0

연령, 배우자유무, 교육수준, 취업상태, 총 출생아수, 사교육비, 거주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를 통제하였음.

가구소득과 자산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4.4 취업/비취업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 여성의 취업상태는 가구의 경제적 상태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취업 여성과 비취업 여성을 구분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 연도별로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표6-1>과 <표6-2>에 제시하였다.

<표6-1>은 취업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표이다.

먼저,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변수인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취업 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2개년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자산의 경우에는 2018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가구소득의 오즈비는 2006년은 2.230(1.315-3.781), 2018년에는 1.770(1.239-2.528)으로 나타나 취업 여성의 경우에 가구소득이 많아질수록 출산의 가능성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18년 자산의 오즈비는 1.319(1.105-1.576)로 확인되어 자산의 증가는 취업 여성의 출산할 가능성을 높였다.

요약해 보면, 2006년에는 경제적 요인 변수 중 가구소득의 상승만이 취업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주었다면, 2018년에는 가구소득과 자산의 상승이 모두 취업 여성의 출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또한, 가구소득과 자산에 대한 오즈비의 변화를 봤을 때, 2006년에서 2018년으로 갈수록 가구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고, 자산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하는 여성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2006년에는 월평균 가구소득만 중요했다면, 2018년으로 갈수록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수준까지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들이 취업 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보겠다. 취업 여성의 연령 증가는 2개년도에서 모두 출산의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배우자 유무는 2018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배우자가 없는 그룹에 비하여 배우자가 있는 그룹에서의 출산 가능성이 4.399배(1.235-15.662) 높았다. 교육 수준은 2개년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대졸 이상과 비교했을 때, 고졸 이하의 오즈비는 2006년에는 0.391(0.264-0.578), 2018년은 0.249(0.181-0.343)로 확인되어 교육 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에 비하여 고졸 이하인 경우의 출산 가능성이 더 낮았다.

총 출생아수는 2018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018년의 총 출생아수 오즈비는 2.728(2.366-3.145)로 확인되어, 총 출생아수의 증가는 출산의 가능성을 높였다. 사교육비의 오즈비는 2006년에는 0.983(0.976-0.990), 2018년은 0.957(0.951-0.963)로 확인되어 사교육비의 증가는 2개년도에서 모두 출산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었다.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2개년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주택의 점유 형태는 2006년 월세 거주 대상자에게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2006년 기타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와 비교하여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오즈비는 0.299(0.105-0.850)로 나타났다.

정리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 취업 여성의 출산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2006년은 연령이 적을수록, 사교육비가 적을수록, 대졸 이상의 학력 등이 있었고, 2018년에는 연령이 적을수록, 총 출생아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가 적을수록, 유배우자,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해당되었다.

<표6-2>는 비취업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도별로 분석한 표이다.

먼저,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비취업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도별로 살펴보겠다.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2개년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산은 2006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2006년 자산의 오즈비는 1.224(1.005-1.491)로 확인되어 자산의 증가는 비취업 여성의 출산할 가능성을 높였다.

요약해 보면, 2006년에는 자산의 상승만이 비취업 여성의 출산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면, 2018년에는 가구소득과 자산 모두 비취업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었다. 즉, 일하지 않는 여성이 출산을 결정함에 있어 2006년에는 자산이 중요했다면, 2018년에는 가구소득과 자산 모두 중요한 고려 요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들이 비취업 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비취업 여성의 연령 증가는 2개년도에서 모두 출산의 가능성을 감소시켰고, 배우자 유무는 2개년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교육 수준은 2개년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는데, 대졸 이상과 비교하여 고졸 이하의 오즈비는 2006년에는 0.473(0.357-0.626), 2018년은 0.497(0.397-0.621)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육 수준이 대졸 이상인 경우보다 고졸 이하인 비취업 여성의 출산 가능성이 더 낮았다.

총 출생아수와 사교육비는 2006년과 2018년의 결과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총 출생아수의 오즈비는 2006년에는 2.133(1.684-2.701), 2018년은 2.525(2.211-2.884)로 확인되어, 총 출생아수의 증가는 비취업 여성의 출산할 가능성을 높였다. 사교육비의 오즈비는 2006년은 0.940(0.932-0.949), 2018년에는 0.964(0.959-0.970)이며, 사교육비의 증가는 일관되게 출산의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2018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

었다. 2018년 결과를 보면, 연립 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오즈비는 0.511(0.317-0.825),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오즈비는 0.604(0.450-0.811)로 확인되었다. 주택의 점유 형태는 2개년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리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 비취업 여성의 출산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2006년과 2018년 모두 연령이 적을수록, 총출생아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가 적을수록, 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었고, 이와 함께 2018년에는 거주 주택 유형이 있었다.

<표6-1> 취업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Variables | | 2006년 | | | 2018년 | | |
|---|---|---|---|---|---|---|---|
| | | Adjusted OR | 95% CI | | Adjusted OR | 95% CI | |
| Log 가구소득 | | 2.230 | 1.315 | 3.781* | 1.770 | 1.239 | 2.528* |
| Log 자산 | | 0.895 | 0.689 | 1.161 | 1.319 | 1.105 | 1.576* |
| 연령 | 27 | ref | | | ref | | |
| | 28-33 | 0.069 | 0.024 | 0.195* | 0.652 | 0.383 | 1.109 |
| | 34-37 | 0.022 | 0.007 | 0.063* | 0.280 | 0.163 | 0.482* |
| | 38 | 0.002 | <0.001 | 0.005* | 0.032 | 0.018 | 0.056* |
| 배우자유무 | 있음 | 1.644 | 0.348 | 7.763 | 4.399 | 1.235 | 15.662* |
| | 없음 | ref | | | ref | |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0.391 | 0.264 | 0.578* | 0.249 | 0.181 | 0.343* |
| | 대졸이상 | ref | | | ref | |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05*

출산: '각 조사년도 이전 2년 동안의 출산 유무'로 측정

<표6-1> (계속)

| Variables | | 2006년 | | | 2018년 | | |
|---|---|---|---|---|---|---|---|
| | | Adjusted OR | 95% CI | | Adjusted OR | 95% CI | |
| 총출생아수 | | 1.091 | 0.796 | 1.496 | 2.728 | 2.366 | 3.145* |
| 사교육비 | | 0.983 | 0.976 | 0.990* | 0.957 | 0.951 | 0.963* |
| 거주주택 유형 | 단독 | 1.393 | 0.738 | 2.626 | 0.733 | 0.450 | 1.192 |
| | 아파트 | 1.317 | 0.745 | 2.329 | 1.097 | 0.794 | 1.516 |
| | 연립,다세대 | ref | | | ref | | |
| 주택 점유형태 | 자가 | 0.577 | 0.236 | 1.410 | 1.181 | 0.625 | 2.233 |
| | 전세 | 0.701 | 0.290 | 1.695 | 1.838 | 0.966 | 3.498 |
| | 월세 | 0.299 | 0.105 | 0.850* | 1.428 | 0.712 | 2.861 |
| | 기타 | ref | | | ref | |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05*

출산: '각 조사년도 이전 2년 동안의 출산 유무'로 측정

<표6-2> 비취업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Variables | | 2006년 | | | 2018년 | | |
|---|---|---|---|---|---|---|---|
| | | Adjusted OR | 95% CI | | Adjusted OR | 95% CI | |
| Log 가구소득 | | 0.944 | 0.619 | 1.439 | 0.884 | 0.640 | 1.222 |
| Log 자산 | | 1.224 | 1.005 | 1.491* | 1.076 | 0.912 | 1.270 |
| 연령 | 27 | ref | | | ref | | |
| | 28-33 | 0.328 | 0.192 | 0.559* | 0.614 | 0.385 | 0.979* |
| | 34-37 | 0.094 | 0.053 | 0.167* | 0.230 | 0.144 | 0.368* |
| | 38 | 0.005 | 0.002 | 0.011* | 0.035 | 0.022 | 0.057* |
| 배우자유무 | 있음 | 4.039 | 0.425 | 38.344 | 5.427 | 0.643 | 45.822 |
| | 없음 | ref | | | ref | |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0.473 | 0.357 | 0.626* | 0.497 | 0.397 | 0.621* |
| | 대졸이상 | ref | | | ref | |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05*

출산: '각 조사년도 이전 2년 동안의 출산 유무'로 측정

<표6-2> (계속)

| Variables | | 2006년 | | | 2018년 | | |
|---|---|---|---|---|---|---|---|
| | | Adjusted OR | 95% CI | | Adjusted OR | 95% CI | |
| 총출생아수 | | 2.133 | 1.684 | 2.701* | 2.525 | 2.211 | 2.884* |
| 사교육비 | | 0.940 | 0.932 | 0.949* | 0.964 | 0.959 | 0.970* |
| 거주주택 유형 | 단독 | 0.888 | 0.552 | 1.428 | 0.511 | 0.317 | 0.825* |
| | 아파트 | 0.984 | 0.664 | 1.458 | 0.604 | 0.450 | 0.811* |
| | 연립,다세대 | ref | | | ref | | |
| 주택 점유형태 | 자가 | 0.776 | 0.388 | 1.551 | 0.723 | 0.429 | 1.220 |
| | 전세 | 1.007 | 0.504 | 2.011 | 1.029 | 0.604 | 1.753 |
| | 월세 | 1.131 | 0.531 | 2.408 | 0.923 | 0.516 | 1.650 |
| | 기타 | ref | | | ref | |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05*

출산: '각 조사년도 이전 2년 동안의 출산 유무'로 측정

## 4.5 자가/비자가 거주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 형태가 자가인지, 비자가(임대, 기타) 인지 여부는 가구의 경제적 상태를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원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가 거주 여성과 전세, 월세, 사글세나 관사 및 사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비자가 거주 여성을 구분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7-1>과 <표7-2>에 제시하였다.

<표7-1>은 자가 거주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표이다. 먼저,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변수인 월평균 가구소득과 자산이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가구소득의 경우에는 2개년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자산의 경우에는 2018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2018년 자산의 오즈비는 1.229(1.040-1.452)로 나타나 자가 거주 여성의 자산이 증가할수록 출산할 가능성이 높았다.

요약해 보면, 2006년에는 가구소득과 자산 모두 자가 거주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었으나, 2018년에는 자산의 상승이 자가 거주 여성의 출산할 가능성을 높였다. 즉,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이 출산을 결정함에 있어 2006년에는 가구소득과 자산 모두 중요한 고려 요인이 아니었다면, 2018년으로 갈수록 자산이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들이 자가 거주 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자가 거주 여성의 연령 증가는 2개년도에서 모두

출산의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배우자 유무는 2018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배우자가 없는 그룹에 비하여 배우자가 있는 그룹에서의 출산 가능성이 4.352배(1.183-16.004) 높았다.

교육 수준, 취업 유무, 총 출생아수 및 사교육비는 2개년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교육 수준을 보면, 대졸 이상과 비교하여 고졸 이하의 오즈비는 2006년에는 0.372(0.275-0.504), 2018년은 0.351(0.280-0.441)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가 거주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할 가능성이 낮았다. 취업 유무의 경우에는 비취업에 비하여 취업의 오즈비가 2006년에는 0.561(0.410-0.766), 2018년은 0.450(0.369-0.549)으로 확인되어, 2개년도 모두 취업 중일 때의 출산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총 출생아수의 오즈비는 2006년에는 1.659(1.309-2.103), 2018년은 2.540(2.242-2.878)으로 확인되었고, 사교육비의 오즈비는 2006년은 0.962(0.955-0.969), 2018년에는 0.961(0.956-0.966) 이었다. 즉, 총 출생아수의 증가는 자가 거주 여성의 출산할 가능성을 높였고, 사교육비의 증가는 그 반대였다.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2018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2018년 결과를 보면, 연립 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하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오즈비는 0.387(0.234-0.638),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오즈비는 0.731(0.560-0.955)로 확인되었다.

정리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 자가 거주 여성의 출산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2006년과 2018년 모두 연령이 적을수록, 총 출생아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가 적을수록, 대졸 이상의 학력, 비취업이 있었고, 2018년에는 이외에도 유배우자, 거주 주택 유형이 해당되었다.

<표7-2>는 비자가(임대, 기타) 거주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연도별로 분석한 표이다.

먼저, 가구의 소득과 자산이 비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도별로 살펴보겠다. 가구소득과 자산 모두 2006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2018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2018년 가구소득의 오즈비는 1.914(1.312-2.793), 자산의 오즈비는 1.199(1.021-1.406)로 확인되어 가구소득과 자산의 증가는 비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할 가능성을 높였다.

즉, 임대 주택과 같은 비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2006년에는 가구소득과 자산이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다면, 2018년으로 갈수록 월평균 가구소득과 자산이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들이 비자가(임대, 기타)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다. 비자가 거주 여성의 연령 증가는 2개년도에서 모두 출산의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배우자 유무는 2018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배우자가 없는 그룹에 비하여 배우자가 있는 그룹에서의 출산 가능성이 9.626배(1.353-68.461) 높았다.

교육 수준, 취업 유무, 총 출생아수 및 사교육비에 대한 결과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2개년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교육 수준을 보면, 대졸 이상과 비교하여 고졸 이하의 오즈비는 2006년에는 0.527(0.383-0.726), 2018년은 0.496(0.373-0.660)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비자가 거주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출산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취업 유무의 경우에는 비취업에 비하여 취업의 오즈비가 2006년에는 0.545(0.384-0.775), 2018년은 0.348(0.270-0.449)로 확인되어, 2개년도 모두 취업 중일 때의 출산할 가능성이 더 낮았다. 총 출생아수의 오즈비는 2006년에는

1.421(1.078-1.874), 2018년은 2.708(2.322-3.157)로 확인되었고, 사교육비의 오즈비는 2006년은 0.963(0.955-0.971), 2018년에는 0.959(0.952-0.966)이었다. 즉, 총 출생아수의 증가는 비자가 거주 여성의 출산할 가능성을 높였고, 사교육비의 증가는 그 반대였다.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은 2개년도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정리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중에서 비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2006년과 2018년 모두 연령이 적을수록, 총 출생아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가 적을수록, 대졸 이상의 학력, 비취업이 있었고, 2018년에는 유배우자가 추가되었다.

<표 7-1> 자가 거주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Variables | | 2006년 | | | 2018년 | | |
|---|---|---|---|---|---|---|---|
| | | Adjusted OR | 95% CI | | Adjusted OR | 95% CI | |
| Log 가구소득 | | 1.197 | 0.787 | 1.821 | 0.999 | 0.737 | 1.354 |
| Log 자산 | | 1.164 | 0.927 | 1.463 | 1.229 | 1.040 | 1.452* |
| 연령 | 27 | ref | | | ref | | |
| | 28-33 | 0.207 | 0.106 | 0.407* | 0.636 | 0.396 | 1.022 |
| | 34-37 | 0.061 | 0.030 | 0.123* | 0.234 | 0.145 | 0.378* |
| | 38 | 0.003 | 0.001 | 0.008* | 0.029 | 0.018 | 0.048* |
| 배우자유무 | 있음 | 1.832 | 0.379 | 8.852 | 4.352 | 1.183 | 16.004* |
| | 없음 | ref | | | ref | |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0.372 | 0.275 | 0.504* | 0.351 | 0.280 | 0.441* |
| | 대졸이상 | ref | | | ref | | |
| 취업유무 | 취업 | 0.561 | 0.410 | 0.766* | 0.450 | 0.369 | 0.549* |
| | 비취업 | ref | | | ref | |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05* / 출산: '각 조사년도 이전 2년 동안의 출산 유무'로 측정

<표 7-1> (계속)

| Variables | | 2006년 | | | 2018년 | | |
|---|---|---|---|---|---|---|---|
| | | Adjusted OR | 95% CI | | Adjusted OR | 95% CI | |
| 총출생아수 | | 1.659 | 1.309 | 2.103* | 2.540 | 2.242 | 2.878* |
| 사교육비 | | 0.962 | 0.955 | 0.969* | 0.961 | 0.956 | 0.966* |
| 거주주택 유형 | 단독 | 1.276 | 0.740 | 2.199 | 0.387 | 0.234 | 0.638* |
| | 아파트 | 1.001 | 0.666 | 1.504 | 0.731 | 0.560 | 0.955* |
| | 연립,다세대 | ref | | | ref | |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05*

출산: '각 조사년도 이전 2년 동안의 출산 유무'로 측정

<표 7-2> 비자가(임대, 기타) 거주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Variables | | 2006년 | | | 2018년 | | |
|---|---|---|---|---|---|---|---|
| | | Adjusted OR | 95% CI | | Adjusted OR | 95% CI | |
| Log 가구소득 | | 1.363 | 0.849 | 2.189 | 1.914 | 1.312 | 2.793* |
| Log 자산 | | 1.021 | 0.844 | 1.235 | 1.199 | 1.021 | 1.406* |
| 연령 | 27 | ref | | | ref | | |
| | 28-33 | 0.233 | 0.123 | 0.441* | 0.584 | 0.356 | 0.960* |
| | 34-37 | 0.070 | 0.035 | 0.140* | 0.253 | 0.152 | 0.422* |
| | 38 | 0.005 | 0.002 | 0.012* | 0.039 | 0.023 | 0.067* |
| 배우자유무 | 있음 | 4.549 | 0.539 | 38.380 | 9.626 | 1.353 | 68.461* |
| | 없음 | ref | | | ref | | |
| 교육수준 | 고졸이하 | 0.527 | 0.383 | 0.726* | 0.496 | 0.373 | 0.660* |
| | 대졸이상 | ref | | | ref | | |
| 취업유무 | 취업 | 0.545 | 0.384 | 0.775* | 0.348 | 0.270 | 0.449* |
| | 비취업 | ref | | | ref | |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05* / 출산: '각 조사년도 이전 2년 동안의 출산 유무'로 측정

<표 7-2> (계속)

| Variables | | 2006년 | | | 2018년 | | |
|---|---|---|---|---|---|---|---|
| | | Adjusted OR | 95% CI | | Adjusted OR | 95% CI | |
| 총출생아수 | | 1.421 | 1.078 | 1.874* | 2.708 | 2.322 | 3.157* |
| 사교육비 | | 0.963 | 0.955 | 0.971* | 0.959 | 0.952 | 0.966* |
| 거주주택 유형 | 단독 | 0.771 | 0.467 | 1.274 | 0.846 | 0.529 | 1.353 |
| | 아파트 | 1.021 | 0.643 | 1.620 | 0.923 | 0.649 | 1.312 |
| | 연립,다세대 | ref | | | ref | | |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P<.05*

출산: '각 조사년도 이전 2년 동안의 출산 유무'로 측정

# 5. 고찰

## 5.1 논의

본 연구는 최근 지속된 경제적 양극화와 자산시장의 가격상승이 개인 간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가구의 소득이나 자산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도 과거와 비교하여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이를테면, 근로소득에 비해 자산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출산과 관련하여 소득보다는 자산의 영향력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6년과 2018년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월평균 가구소득과 자산의 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과거 대비 현재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2006년에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의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가구의 소득을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살펴본 결과에서, 1분위에 속하는 대상자에 비하여 3분위 대상자의 출산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가구소득이 하위 20%(1분위)인 경우에 비해 3분위 이상 그룹에서 첫 자녀의 출산 가능성이 높았던 선행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김선숙 & 백학영, 2014).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2018년에는 가구소득과 자산이 증가할수록 출산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각 변수를 세 가지로 범주화하여 분석했을 때에는 가구소득은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고, 자산은 1분위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비하여 2분위와 3분위 대상자의 자녀 출산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과거 대비 현재의 급격한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자산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2006년에서 2018년으로 갈수록 가구소득의 상승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약화되고 있으며, 자산의 상승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가구소득에 대한 Model 2의 오즈비를 보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출산할 가능성이 2006년에는 1.384배(1.018-1.883) 높았고, 2018년에는 1.327배(1053-1.67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의 소득을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2006년은 가구소득이 1분위에 속하는 대상자에 비하여 3분위 대상자의 자녀 출산 가능성이 1.449배(1.031-2.036) 높게 나타났으나, 2018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구의 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자산의 경우에는 모든 Model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2006년의 결과와 달리, 2018년에는 모든 Model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확인되어 출산에 미치는 자산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자산을 3분위로 계층화하여 살펴본 2018년 결과에서 1분위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비하여 2분위 이상의 모든 구간에서 자녀 출산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자산의 격차가 출산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자산의 의미가 중요해질수록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질수록 비교적 경제적 안정성이 낮은 대상자의 자녀 출산 의지는 점차 희박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더욱 심

각하게 만들 수 있다.

넷째, 취업한 여성과 비취업 여성을 비교하여 보면 2개년도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이 출산을 결정함에 있어 2006년에는 가구소득이 중요했고, 2018년으로 갈수록 가구소득과 함께 자산까지도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되고 있었다. 또한, 2006년에서 2018년으로 갈수록 가구소득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자산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하지 않는 여성의 출산은 2006년에는 자산만 중요했으나, 2018년에는 가구소득과 자산 모두 중요한 고려 요인이 아니었다.

비취업 여성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혼 여성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일 수 있다. 만약,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취업할 필요성이 없는 여성이라면, 자발적으로 비취업을 선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경제적 요인이 출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7년(2014년~2020년) 동안의 취업자수 증감 현황과 구직단념자 및 실업률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 전반적으로 취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그림 2], [그림 3]). 따라서 자신의 교육 수준, 기술 및 경험 등이 부족해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자녀 양육 등으로 인하여 경력 단절 상태인 여성이라면 비자발적으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이 출산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취업 여성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나 종사상 지위 등이, 비취업 여성은 초혼 연령, 일하지 않는 이유,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 등이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공선영, 2006).

다섯째, 자가 거주 여성과 비자가(임대, 기타) 거주 여성을 비교했을 때,

2006년에는 가구소득과 자산 모두 자가 거주 여성과 비자가 거주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었으나, 2018년에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에게는 자산의 증가가 중요했고, 비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에게는 가구소득과 자산의 증가가 모두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주택 거주자의 자산의 상승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소유자의 출산율이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Dettling & Kearney, 2014). 한편, 비자가 주택 거주자의 경우에는 자산시장의 가격상승은 주거비 부담을 더욱 증가시키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도록 가구소득과 자산의 증가가 모두 중요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의 변화는 향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상황을 고려한 출산지원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출산에 있어 자산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 과거 산발적이고 수혜자 입장에서 체감효용이 낮은 지원 정책에서 가구의 경제적 자산의 지속적 증가지원으로 출산지원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연령대의 주택 소유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보유 비용은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변화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가령 결혼, 출산 시점 가구에 대하여 주택 구입 대출을 시행하는 데 있어 대출 금액 제한을 완화하고, 이에 대한 이자율도 대폭 인하하여 출산지원 정책이 가구의 자산 증식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 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취·등록세 환급 또는 할인제도, 출산전·후 근로소득 감소기간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제도 등이 출산 연령대의 주택 소유의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한다.

또한 출산율 향상을 위한 보유 비용 경감 관련, 다자녀 가구에게 주택과 관련 보유세 과세 기준 완화 또는 비과세 혜택 부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추가 출산이 가능한 기혼부부들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출산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과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소액의 간헐적 현금 지원, 일부 대상이나 지역별 선택적 지원보다는 주택 관련 세금 등 전국민의 수요를 대상으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보편적, 포괄적인 직접적 감세를 통한 지원 시 그 효과가 크고 정책집행에 들어가는 소요비용도 경감될 수 있다.

## 5.2 한계점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소득과 자산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역별 영향을 고려하여 살펴보지 못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에는 지역 관련 변수가 있었으나, 변수의 통일성이 확보되지 않아 활용하지 못하였다. 2006년은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되어 있고, 2018년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도권, 지방 등 지역별로 주택가격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고, 이는 가구의 경제적 상태에 상이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가구의 경제적 수준을 측정하는 데 있어 부모의 경제적 지원과 같은 외부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자산시장은 부부의 소득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부모

의 경제적 지원과 같은 변수를 통제하여 분석해야 하나, 개인간 부의 이전까지 반영된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점은 제한점으로 남는다.

셋째, 가구소득과 자산의 상호작용 결과로 인하여 출산에 영향을 주는 구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소득 보전의 효과가 상쇄되는 자산의 구간을 밝히는 연구가 실시된다면, 임신·출산에 대한 현금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산은 복합적인 요인이 관련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변수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 5.3 의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소득과 자산 등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의 변화를 과거와 현재의 2개 시점에서 비교·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주로 소득과 자산의 변수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단일 시점에서 연구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속된 경제적 양극화와 자산시장의 가격상승에 따른 가구소득과 자산의 변화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에 출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의 출산지원 정책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6.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15~49세 가임기 기혼 여성의 출산 행태를 조사하는 대표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소득과 자산의 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과거 대비 현재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2006년에는 가구소득의 상승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산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018년에는 가구소득과 자산의 상승이 모두 출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2006년에서 2018년으로 갈수록 가구소득의 상승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소 약화되고 있으며, 자산의 상승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최근 지속된 경제적 양극화와 자산시장의 가격상승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출산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문헌 ]

공선영. (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19*(1), 119-149.

공주, & 신광영. (2018). 한국의 소득불평등에 관한 새로운 접근. *산업노동연구, 24*(3), 1-34.

김민영, & 황진영. (2016). 주택가격과 출산의 시기와 수준: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36*(1), 118-142.

김사현. (2009).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사회복지정책, 36*(2), 113-137.

김선숙, & 백학영. (2014).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정책, 21*(3), 129-157.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도세록, & 이건우. (2006). 2006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In: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정. (2013). 소득계층별 출산행태 분석과 시사점. *보건· 복지 Issue & Focus, 191*, 1-8.

김은정, 이성림, 이완정, & 김한나. (2011). *소득계층별 출산· 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식. (2017). 자산과 소득에 따른 차별출산력 연구. *한국인구학, 40*(3), 51-78.

박진백, & 이재희. (2016). 경기변동에 따른 주택가격변동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배호중, & 한창근. (2016). 신혼부부의 주택자산과 출산: 2000 년 이후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6*(3), 204-238.

신형섭, & 정의철. (2021). 주택점유형태가 신혼가구의 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연구, 29*, 5-32.

이삼식. (2013). 주거환경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보건· 복지 Issue & Focus, 183*, 1-8.

이소영, 김은정, 박종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 이지혜. (2018). 2018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복지 실태조사. In: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우진. (2018). 한국의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현황과 과제. *정부학연구, 24*(2), 29-59.

전병유. (2019). 한국에서의 자산 축적과 자산 격차. *보건복지포럼, 2019*(4), 43-55.

정민수, & 이근재. (2019). 여성의 소득과 출산 간 관계: 여성의 고소득은 출산에 부정적인가?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99-120.

정은희, & 최유석. (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5-34.

차승은. (2008). 부모역할의 보상/비용과 둘째 자녀 출산계획: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3*, 111-134.

천현숙, 이길제, & 김준형. (2016).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In: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ecker, G. S.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pp. 209-240): Columbia University Press.

Coburn, E. (2016). Economic Inequality Matters: Reflections on Piketty's Capital in the 21st Century. *Socialist Studies/Études Socialistes, 11*(1), 193-193.

Dettling, L. J., & Kearney, M. S. (2014). House prices and birth rates: The impact of the real estate market on the decision to have a bab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10*, 82-100.

Kim, D.-S. (2007).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0*(1), 67-95.

[ 보도자료 및 보고서 ]

2018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작성 결과 및 국민대차대조표 2015년 기준년 개편 결과 [웹사이트]. (2019년 7월 17일). https://kostat.go.kr/portal/korea/kor_nw/1/13/4/index.board?bmode=read&bSeq=&aSeq=376345&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보건복지부. (2020).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세종: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통계자료 ]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SIS(통계청a, 경제활동인구조사, 성별 구직단념자(2014.1월~현재)),

2021. 10. 13.

KOSIS(통계청b, 경제활동인구조사, 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2021. 10. 13.

KOSIS(통계청c, 인구동향조사, 시도/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출산연령), 2021. 9. 15.

KOSIS(통계청d, 인구동향조사,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자연증가 등), 2021. 10. 13.

KOSIS(통계청e, 인구총조사,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일반가구) - 시군구), 2021. 10. 19.

KOSIS(통계청f, 주택소유통계, 거주지역/가구주의 성/연령대별 아파트소유 가구수), 2021. 10. 14.

KOSIS(OECD, 일반 인구통계), 2021. 10. 20.

## Abstract

# Analysis of the effect of household income and assets on fertility in South Korea



SeongHee Hong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tarted from the idea that the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or assets on fertility may have changed compared to the past as the economic disparity between individuals has recently increased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was conducted on married women aged 15 to 49 using data from the 2006 and 2018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This study conducted an analysis comparing the past and present on the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and assets on fertility.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In 2006, an increase in household income resulted in an increase in fertility, but the effect of assets on

fertilit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2018, the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and assets on fertil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However, went by from 2006 to 2018, the influence of an increase in household income on fertility has weakened slightly, and the influence of an increase in assets on fertility has gradually strengthened.

The changed influence of household income and assets on fertility may continue in the future.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serious low fertility problem in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fertility support polic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important evidence for establishing and improving fertility support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recent socio-economic changes in Korean society, which is suffering from a seriously low fertility problem.

.....

keywords : Fertility Differentials, Economic Inequality,
Low Fertility, Household Income, Assets

*Student Number* : 2016-25193